16호 - 주체91(2002)년 4월 30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김정일총비서

청년학생 홰불행진참가자들에 감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청년학생들의 홰불행진에 참가한 창작지휘성원들과 전체 청년학생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홰불행진 지휘성원들과 창작가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참가자들은이번 경축행사를 정치적의의가 있게 높은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건군절을 빛나게 장식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들은 홰불행진을 통하여 백두의 혁명전통을 이어 선군의 기치 따라 승리만을 아로새겨 온 우리 당과 혁명무력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장엄한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 보였으며 조선로동당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 조선인민의 혁명적의지와 신념,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주체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특색 있게 보여 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년학생들의 홰불행진이 아주 잘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27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2002/04/28
조선중앙통신

자주정치로 세기를 빛내이신 희세의 위인

≪로동신문≫28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은 자주정치로 세기를 빛내이신 희세의 위인이시였다는데 대하여 쓴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령도로 우리 혁명과 조국,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는 곧 20세기 정치사의 축도이며 자주정치의 세기적모범이 창조된 빛나는 로정이였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그이의 자주정치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정치이며 철저한 반제적립장을 견지하고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정치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펴오신 정치는 바로 주체의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된 자주적인 정치였다.

그이께서 70성상 사소한 로선상 착오나 실수, 침체와 답보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 오실수 있은것은 바로 주체의 정치철학에 기초하여 언제나 인민을 중시하고 인민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오시였기때문이다.

철저한 반제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자주정치의 중요한 요구이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ㅌ.ㄷ≫를 결성하시고 우리 혁명을 개척하신 항일혁명의 그 나날로부터 생애의 전 기간 시종일관하게 반제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 세우시고 그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인덕정치의 시원을 열어 놓으시였다.

글의 필자는 그이께서 시원을 열어 놓으신 자주정치의 전통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여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가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 지게 되였으며 21세기가 자주정치의 세기로 빛을 뿌리고 있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02/04/28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주석을 경모하는 인쇄물 배포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서울 강남구일대의 주택들에 어버이수령님을 경모하는 인쇄물이 배포되였다.

인쇄물의 앞면에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주석의 사진이 모셔 져 있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 져 있다.

인쇄물의 뒤면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배경으로 ≪**김일성**장군의 노래≫가사가 적혀 있었다 한다.

2002/04/28
조선중앙통신

2 종합
- 남조선의 외교통상부 장관의 망발 규탄
- 부쉬의 악의축 론 제창을 규탄
- 악의 제국의 위험한 북침전쟁열
- 미국무장관 파월, 세론에 도전하는 망발
-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들 상봉
- 구룡연 동행관광 둘째날 세번 상봉

4 노작
-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1)

6 세기와 더불어
- 7장 3절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2)

8 칭송
- 선군
- 출판물에 비낀 위인상

9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어머님이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와 관련한 명언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내가 본 조선인민군
- 전갈에 대한 생각
- 반미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자

13 투쟁보도
- ≪F-X사업≫은 감사원도 못 건드리나
- F-15K선정 철회 박순희 대표 중상 사과
- 부시 전대통령 내달 5일 방한
- 국방백서 주적 개념 논란 예상
- 2002 국방백서, 주적론 삭제하라

15 운동강좌
-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1)

남조선의 ≪외교통상부≫장관의 망발 규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조선의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이 부쉬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추어 주면서 동족을 해쳐 보려는 추악한 속심을 드러내 놓은것과 관련하여 28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은 미국에 가서 부쉬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추어 주고 마치 그 결과로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게 된것처럼 상전에게 아부아첨하는 비렬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대외관계를 담당했다는 자가 이따위 나발을 불어 댄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발전시키려는것보다 상전의 비위나 맞추고 그의 힘을 빌어 어떻게 하나 동족을 해쳐 보려는 추악한 속심을 드러내 놓은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북남사이의 합의에 따라 일시 중단되였던 흩어 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들이 추진될수 있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강경압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동결상태에 처했던 북남관계가 원상회복되고 북남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다시 시작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민족문제를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성의 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런데 남조선의 ≪외교통상부≫장관이라는 자가 미국에 찾아 가 북남관계가 회복되여 가고 있는것이 마치도 미국의 ≪힘≫의 정책의 결과인듯이 허튼 악담질을 한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이고 도전이며 참을수 없는 사대굴종행위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최성홍의 망발이 6.15북남공동선언과 4. 5공동보도문에 따라 북남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찬물을 끼얹는 죄악적인 반민족행위로 된다고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공동보도문이 리행단계에 들어 선 때에 남측당국자들속에서 튀여 나온 이러한 망발은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어 엎고 정세를 또다시 긴장격화의 국면에로 되돌려 세우려는 매우 위험한 배신행위이다.

특히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에 책임이 있는 고위당국자가 한 이러한 망발은 결코 그 어떤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당국의 공식적인 립장을 대변한것이라는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과 아량을 미국상전에게 아부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미국의 ≪힘≫의 정책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그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며 민족내부문제를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자체로 풀어 나가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다.

호의를 악의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보복의 철추만이 내려 질뿐이다.

최성홍과 같이 미국상전을 섬기며 동족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반역도배들은 즉각 제거되고 매장되여야 한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바랄수 없으며 북남관계의 진전도 기대할수 없다.

남측당국이 진실로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가 진전되기를 바란다면 이번 ≪외교통상부≫ 장관이란 자의 망언에 대해 사죄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적이고도 납득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지켜 볼것이다.

2002/04/28 조선중앙통신

부쉬의 ≪악의 축≫론 제창을 규탄

≪로동신문≫ 28일부는 최근 부쉬가 버지니아군사대학 학생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이번에도 누가 ≪생화학 및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그러한 무기들을 운반할 미싸일을 제작하고 있는 나라는 ≪악의 축≫, ≪불량배국가≫라고 한것을 미국식의 강도적론리로 단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며 세계각지에 수많은 침략군을 두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조성하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부쉬가 다시금 ≪악의 축≫을 운운한것은 미국의 변함 없는 대조선적대시압살기도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의도와 타산에서 ≪악의 축≫론을 다시 제창하였는지에는 관계없이 그것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로, 침략위협으로 간주한다.

부쉬의 이번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미국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계속 맞서나가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해주고 있다.

미국의 집권세력은 ≪악의 축≫론을 계속 제창하다가는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외토리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2002/04/28 조선중앙통신

≪악의 제국≫의 위험한 북침전쟁열

최근 미대통령 부시는 미국의 텍사스주를 비롯해 여러 지역을 돌아치면서 또다시 ≪악의 축≫발언을 연발해 우리 민족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부시는 자기의 ≪악의 축≫규정에 대해 불편해하는 비평가들에게 할말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는 ≪악의 축≫이 분명히 있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까마귀 하루에 열두번 울어도 까욱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부시에게서 다른 소리가 나올 것을 기대한 바는 아니지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자기의 ≪악의 축≫발언을 정당화해 나서고 있는데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

부시의 이같은 행태는 자기의 망언이 맞지 않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날강도적 논리의 발상이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부시의 ≪악의 축≫발언은 그 천만부당성으로 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

더욱이 부시의 ≪악의 축≫발언에 대한 우리 민중의 반발심은 하늘을 찌를듯 하다. 그것은 부시의 ≪악의 축≫발언이 북침전쟁선전포고와 같은 것이고 민족공멸을 초래할 극히 위험한 망언이기 때문이다.

부시는 북을 ≪악의 축≫이라고 몰아붙였고 ≪한국≫행각시에는 북에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문제를 걸고들면서 북에 대해 ≪위험국가≫요 뭐요 하는 악담까지 퍼부었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라는데서는 북을 ≪핵선제공격국≫으로 지목해놓고 전술핵무기개발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북침전쟁을 끝끝내 일으키려한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상 부시의 ≪악의 축≫발언이후 남북관계는 더더욱 냉각상태에 이르고 한반도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은 지금 실천단계에 이르러 ≪한국≫에 ≪F-15K≫전투기강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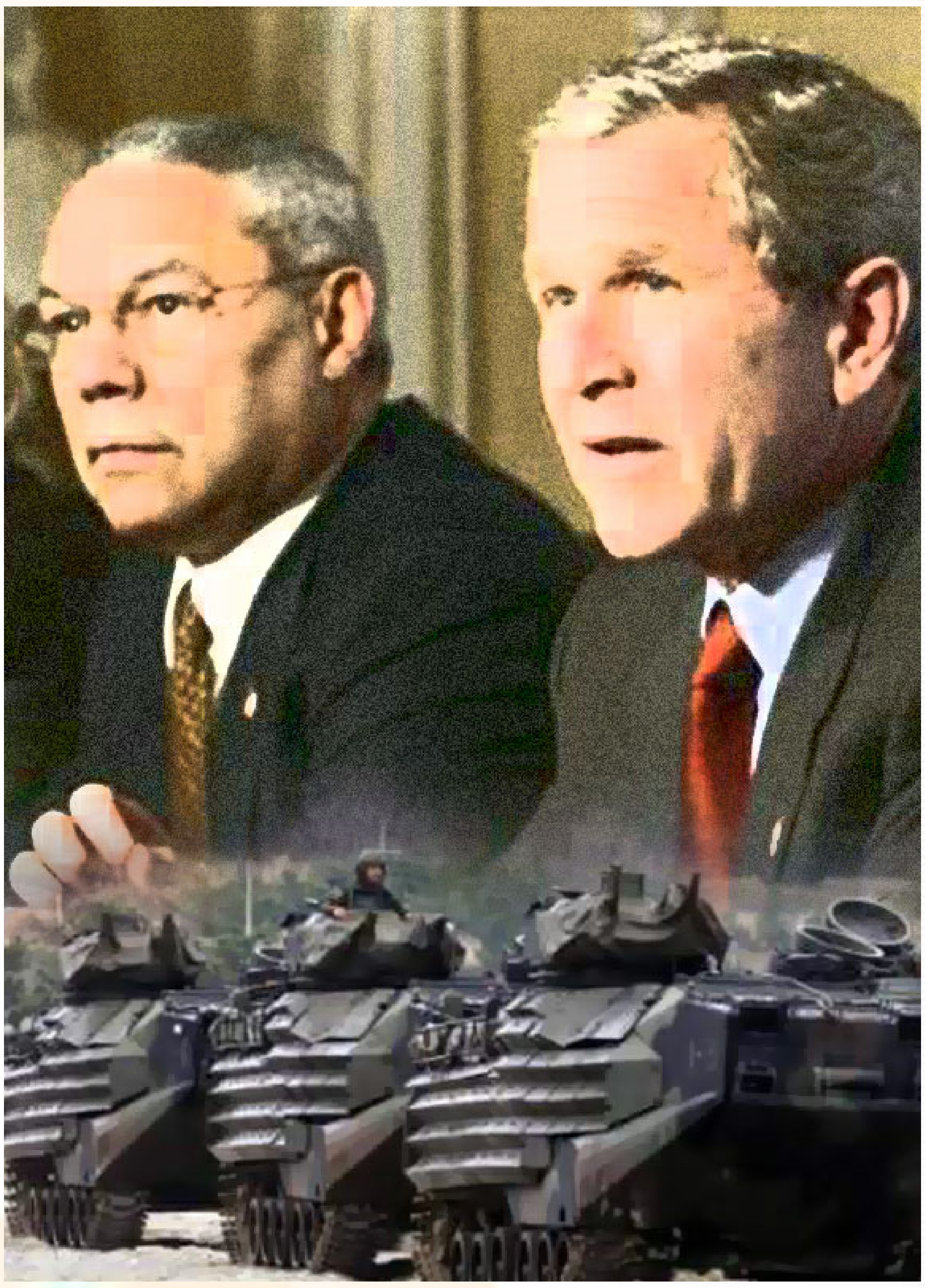
지금 ≪한국≫에는 미국에 의해 1천여개의 핵무기를 비롯한 방대한 양의 대량살상무기가 배비되어 있어 이 땅은 그야말로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화했다. 만약 미국이 이 땅에서 끝끝내 북침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이북은 부득불 침략적인 미군기지들을 타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파괴력은 지난 세기 50년대 전쟁때와는 대비도 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저주할 미국때문에 이 땅은 아무것도 성한 것이 없는 폐허로 화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북침전쟁논리야말로 민족공멸을 초래할 최대의 악의 논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민족은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남북이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고 이 강토에서 자손만대 복락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우리의 이 소원을 성취하려면 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 민중은 악의 제국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을 저지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분기해 나설 것이다.

그리운 북녘 형제들에게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8일

미국무장관 파월, 세론에 도전하는 망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무장관 파월은 최근 상원 세출위원회 외교활동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은 부시가 밝힌 ≪악의 축≫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겠다느니 우리는 북에 대한 부시의 개념규정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느니 뭐니 하는 용납못할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북에 대한 ≪악의 축≫규정을 철회하라는 세론에 도전하는 용납못할 작태라 하겠습니다.

호전광부시의 ≪악의 축≫론은 그가 담고 있는 침략적이고 범죄적인 성격으로 해서 세론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월은 부시의 침략적인 망발의 엄중성을 느낄 대신 부시가 밝힌 ≪악의 축≫입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가겠다며 북에 대한 침략위협을 계속 가할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악의 축≫론은 북에 대한 악의에 찬 시비중상이고 힘으로 북을 압살하려는 침략전쟁의식의 발로였습니다.

미국의 대북압살기도는 부시호전집단에 의해 극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퍼런 칼을 빼들고 강도질을 하면서도 제편에서 강도야하고 소리치는 것이 미국의 본성이고 행동방식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기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육무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것을 평화적인 국민들을 학살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대량살육무기들은 그 누구를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자주권수호를 위한 북의 자위적 국방력강화조치가 저들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거꾸로 걸고들며 그를 군사적 침략의 구실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들은 대량살육무기를 휘둘러대며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고 지배해도 되지만 북은 자위를 위한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강도적 논리인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부시의 이러한 강도적 논리를 규탄하면서 그것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잘 알고 있는 파월이 부시의 ≪악의 축≫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겠다고 떠든 것은 북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침략책동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지금 북과의 전제조건없는 대화에 대해 떠들고 있습니다. 북을 여전히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공격을 가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미국이 북과 마주앉아보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시의 ≪악의 축≫ 망발을 규탄하는 세론을 잠재워보려는 하나의 제스추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이 진실로 이북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을 취소하고 날로 노골화되는 대북압살기도를 즉시 버려야 합니다.

미국이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8일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들 상봉

오늘 금강산에서 우리측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이 남측에서 온 혈육들과 상봉하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네번째로 되는 이번 상봉에서는 지난 4월초 남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남측특사의 평양방문때 합의발표된 공동보도문에 따라 북과 남에서 각각 100명씩의 상봉자들이 흩어 진 자기의 가족, 친척들과 만나게 되였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오늘 오후 5시 첫 상봉장소인 금강산려관에서는 먼저 남측 100명의 상봉자들이 북측에 있는 자기의 가족, 친척들과 집체상봉을 하였다.

남측 상봉자들은 북에 있는 자식들과 형제들, 친척들이 공화국의 품속에서 몰라 보게 성장한 모습과 들으면 들을수록 꿈만 같은 현실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에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상봉은 계속된다.

2002/04/28 조선중앙통신

구룡연 동행관광 둘째날 세번 상봉

제4차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29일 남측 방문단 99명은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개별상봉, 오후 공동오찬에 이어 구룡연을 북측가족 183명과 공동 관광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혈육 재회의 기쁨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12분부터 낮 12시 직전까지 금강산여관 객실에서 진행된 개별상봉에서 지난 26일 별세한 어병순(93) 할머니를 대신해 방북한 이부자(李富子.62.전북 남원시 아영면 성리)씨는 북측 언니 이신호(66)씨와 눈물의 추도식을 거행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추도식을 위해 황태, 사과 등 제수용품을 이씨에게 전달했다.

남북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풍복호 선장 최원모(崔元模.92)씨의 부인 김애란(金愛蘭.79) 할머니는 북측 여동생 김순실(67)씨 등과 함께 한 오찬에서 피랍 당시 남편 최씨의 얼굴과 풍복호 선체 등이 담긴 사진을 꺼내 보이며 ≪남편의 생사 여부라도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동석 오찬은 낮 12시부터 2시간 30분동안 이어졌다.

남북 가족들은 이어 오후 금강산 현지에 비가 계속 내리자 당초 삼일포 대신 구룡연을 1시간여간 동행 관광했다.

금강산여관에서 구룡연까지의 이동과정에서 남북 가족들은 버스에 함께 올라 금강산을 둘러보는 동승 참관도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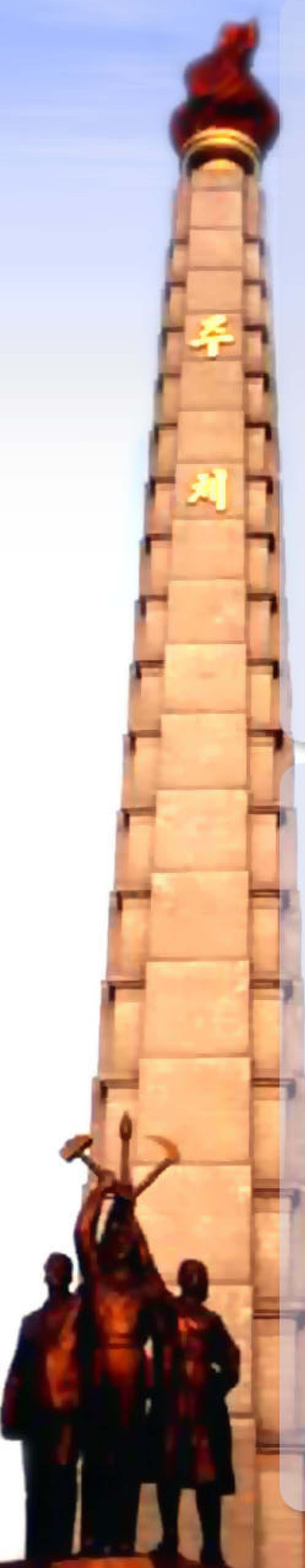
이날 일정을 마친 남측 방문단은 30일 작별상봉 후 관광선 설봉호 편에 속초로 귀환할 예정이다.

한편 남측 단장인 이세웅(李世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와 북측 단장인 최창식 조선적십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접촉을 갖고 제5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 등을 협의했다.

공동취재단
2002/04/29 연합뉴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1)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노작 - 주체84(1995)년 10월 2일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50년이 지나갔다.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력사적인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여 온 우리 당의영광스러운투쟁로정을감회깊이돌이켜 보며우리 당을창건하시고 령도하여 오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 없는 감사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으로 창건되였으며 반세기에 걸치는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로숙한 혁명적당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빛나는 새 력사를 창조하여 왔으며 이 길에서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렸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곧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다. 우리 당이 걸어 온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도 영광에 넘친 승리의 길에도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도 우리 당이 지닌 불패의 위력과 높은 권위도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되여 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존함과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의 50년 력사가 빛나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업적은 우리 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영광스러운 당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을 혁명의 근본문제로 보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우리혁명을 이끌어 나갈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을 벌리시였으며 당창건을 위한 사업도 인민대중속에 들어 가 대중속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을 키워 내고 기층 당조직을 꾸리는 방법으로 아래에서부터 기초를 쌓아 나가시였다.

우리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20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되고 공고화되였다.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며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공산주의핵심대렬이 자라 나고 단련되였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진정한 통일단결이 이룩되고 공산주의운동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닦아 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와 빛나는 혁명전통이 마련되였으므로 하여 해방후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이 제때에 창건될수 있었으며 창건 첫날부터 새 조국건설을 향도하는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 나갈수 있었던것이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믿음직한 전위부대, 전투적참모부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창건으로 자주시대 혁명적당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당창건위업을 독창적으로 빛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당을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당건설의 력사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여 온 력사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여 온 주체의 혁명적당이다.

당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당의 성격과 투쟁목적,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방향이 규정되며 당의 전투력과 위력이 좌우되게 된다.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만이 위대한 당으로 될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 주시고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로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과학적세계관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건설의 사상리론적기초이며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일관하게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한 토대를 가진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는 위대하고 권위 있는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하여 온 여기에 우리 당건설의 근본특징이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령도하는 과정에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리와 원칙, 그 실현방도를 새롭게 밝히시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은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데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의 본질이 있다. 당의 공고성과 위력, 당건설의 모든 성과는 당을 이루는 간부들과 당원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결속시키며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을 이루는 군중을 당의 두리에 얼마나 튼튼히 묶어 세우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건설의 기초이고 당사업의 기본이며 사상을 무기로 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할수 있다.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은 혁명의 주체에 관한 원리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칙을 새롭게 밝히였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혁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은 최고뇌수이고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당이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 건설되여야 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존재와 발전을 위한 근본요구이며 당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계승하여 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철저히 구현하고 관철하여야 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리와 원칙, 방도들을 밝혀 준것으로 하여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 없이 높여 나갈수 있게 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수령의 령도체계이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세워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당대렬의 사상적통일과 조직적단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당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순결체로, 조직적전일체로 되여야 한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투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으로 창건되였으며 반세기에 걸치는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로숙한 혁명적당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쟁은 당원들을 수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묶어 세우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배치되고 통일단결을 저해하는 이색적인 사상들과 분파적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을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을 끊임 없이 강화하고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과 분파적요소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 있게 벌림으로써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혁명에 커다란 해독을 끼친 종파주의를 철저히 청산하였으며 현대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사조들이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이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종파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현대수정주의를 비롯한 기회주의의 침습을 철저히 막아 낸것은 당대렬의 통일단결과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이룩한 력사적인 승리였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인 통일단결로 심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해 나가고 있다. 전체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여기에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전투적당으로 건설하시였다.

조직성과 규률성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이며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전투력의 기본담보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조직성과 규률성에 의하여 보장되며 조직성과 규률성을 떠난 통일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조직성과 규률성이 없으면 혁명을 령도할수 없을뿐아니라 당 자체가 무기력하고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정확히 구현하여 당안에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적이며 자각적인 규률을 확립하시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은 중앙집권적규률을 확고히 세우는 기초우에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는 당의 조직원칙이다. 중앙집권제는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이며 이것을 떠나서는 당의 통일단결도 행동의 일치성도 보장할수 없다. 민주주의는 당원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는것이다. 중앙집권적규률이 약화되고 무원칙한 ≪민주주의≫가 허용될 때에는 당안에 무질서가 조성되고 당이 사분오렬되게 된다. 우리 당에서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정확히 적용됨으로써 수령의 령도가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관통되게 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 들이고 높은 열의와 창발성을 발휘하여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는데서 기본고리로 된다. 우리 당은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조직원칙과 당사업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며 언제나 산조직으로서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 한편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당원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수령과 련결되며 당조직사상생활을 통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 당의 숨결을 받아 안게 된다.

당생활은 당원들을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우는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당생활을 떠나서는 수백만을 헤아리는 당원들의 사상의 일치성, 행동의 일치성이란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에 소속되여 유일적인 당생활규범에 따라 정상적으로 당생활을 하며 당생활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정연한 당생활체계와 혁명적당생활기풍이 철저히 섬으로써 당원들의 당생활이 정규화, 생활화되고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전당이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에 기초하여 한결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가장 조직적이고 규률 있는 당으로 되였으며 전투적조직으로서의 위력을 남김 없이 발휘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뿌리를 박은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때에만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다. 원래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대표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로동계급자신뿐 아니라 전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하는것이다.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성의 시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과 자주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자와 농민, 근로인테리를 구성성분으로 하는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마치와 낫과 붓을 함께 새긴 우리 당의 기발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자주시대 혁명적당의 빛나는 상징이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인민대중의 단결의 기치,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 당은 대중적당건설로선에 따라 로동자와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널리 당에 받아 들이고 당대렬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를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당의 로동계급적,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당을 끊임 없이 확대강화하여 나갔다. 당이 대중적당으로 건설되고 당활동에서 군중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대표하는 당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뿌리 박고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대중적당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사회주의건설과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 나가는 과정,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과정이며 대중적당건설로선은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우리 당은 대중적당건설로선을 관철함으로써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견지하면서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강화하게 되였으며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과정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해 나갈수 있도록 전망성 있게 건설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위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하여 나갈 때에만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면모를 변함 없이 고수할수 있으며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다.

(내일 계속)

3권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2)

최자익은 왕청별동대의 대원으로 유격대 생활을 시작한 후 중대장을 거쳐 독립여단 연대장으로까지 승진되어 활동하다가 전사한 최인준의 아버지인데 내가 셋째섬에 올 때마다 꼭꼭 잊지 않고 만나곤 하는 노인이다.

이 노인이 서일이 이끌던 북로군정서에서 서기까지 하며 따라다닐 정도로 식견이 높은 데다가 성미가 활달하고 솔직하여 만나기만 하면 참고가 될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노인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의 인사에 최자익은 ≪사니까 사는구나 하지요.≫하는 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 퉁명스러운 어조가 유격구의 민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노인님, 유격구 생활이 그렇게도 힘듭니까?≫

최자익은 그런 질문을 받자 언성을 높여 벌컥 화를 내었다.

≪소비에트 정부에서 역축과 농쟁기를 거둬갈 때까지만 해도 난 참았댔네. 아라사에서도 농업집단화라는 걸 할 때 그런 놀음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는다고 짐작했거든. 그런데 며칠 전에 공동식당을 경영한다면서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거둬가는 걸 보고서는 침을 뱉았네. ≪그래 우리 늙은이들이 공동식사 때문에 하루 세 번씩 자기 집 온돌방을 두고 한지로 왔다갔다해야 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는 더는 못살겠다. 꼼무나인지 아르젤리인지 그런 귀신단지 같은 세상을 만들겠거든 젊은 것들끼리나 해라. 우리는 숨이 차서 더 따라 못 가겠다.≫고 말일세. 그랬더니 이번에는 봉건숙청이요 뭐요 하고 노인들을 군중대회장에 내다놓고 며느리들한테 비판을 시키지 않겠나. 우리 나라 역사가 자그만치 5천년이라는데 어느 세월에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인준인 그래두 나보고 소비에트를 비방하면 안된다구 야단질이 아니오. 그래서 내 그 녀석의 사등뼈를 꺾어 놓으려구 했네.≫

유격대 지휘관의 아버지가 소비에트의 시책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면 다른 주민들의 동향은 더 알아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 후 유격구에서 ≪반민생단≫ 투쟁이 극좌적으로 벌어지던 공포시기와 유격구의 해산을 앞두고 군대와 인민이 눈물로 석별의 정을 나누던 그 쓸쓸한 나날에 이 노인을 만났을 때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시국을 통탄하던 그의 하소연을 자주 회상하였다.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후 반년도 못되는 사이에 조중인민의 관계는 다시금 급격히 악화되었다. 청산된 지주들의 대부분이 중국인 지주들이었던 것만큼 5.30폭동 때와 같은 갈등이 재연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반일부대들은 이전날처럼 또다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였다. 일본군대와 만주국군대는 물론 구국군도 적이 되고 중국지주도 적이 되었다.

항일유격대는 소규모의 비밀유격대처럼 남의 집 뒷골방에 숨어 있던 창건 초기의 처지와 꼭같은 처지에 빠져 조선사람들이 사는 부락에 조심스레 배겨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별동대라는 간판을 부활시킬 수도 없었다. 구국군은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꼬리빵즈≫라고 답새겼다. 유격대의 활동이란 반지하투쟁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최인준

우리가 1년 남짓하게 투쟁해서 쌓아올린 모든 공적들이 억울하게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소비에트의 시책을 놓고 우리 동무들 가운데서도 분해작용이 시작되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러시아에 가서 혁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나 배워가지고 와서 새 출발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간도사람들 식으로 하다가는 혁명이고 뭐고 다 망치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끼리 투쟁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같지도 않은 혁명을 할 바엔 집에 돌아가서 부모들에게 효도나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하는 중국동무 한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쏘련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다른 중국동무 한 명은 쏘련에 보내주었다.

이런 사태 하에서도 유격구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들은 정책전환을 단행할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동만특위가 지도기관으로 존재하였지만 국제당의 시정방침에 수정을 가할 만한 노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누구든지 우경의 모자를 쓸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일어나 혼란한 시국을 평정하고 유격구를 붕괴의 위기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자면 소비에트 좌경노선에 맞설 수 있는 결단과 새로운 테제가 필요하였다. 내가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논문을 소책자로 발표했던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나는 정권건설 문제를 가지고 마촌에서 동장영과 논쟁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이용국현당서기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하였다. ≪소비에트 건설사업대강에 관한 동만특위의 결의≫가 이미 하달되었고 또 사수평에 소비에트 정부도 수립된 것만큼 아무리 논쟁을 해야 소용없다는 것이었고 논쟁이 잘못 번지면 제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용국은 김백룡이 소비에트를 잘못 건드렸다가 우경분자로 몰리던 사건을 간단히 말해주었다.

김백룡은 북만에서 한때 현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간도지방에서 소비에트 조직을 앞두고 선전사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사유로 해서인지 동만특위를 거쳐 소비에트 정부수립의 첫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왕청 5구에 나와 있었다고 한다.

그는 5구에서 소비에트 정부를 내오게 된다는 말을 듣고 동만에서 소비에트를 내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경기회주의자의 감투를 쓰고 투쟁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나중에는 북만 땅으로 쫓겨가게까지 되었다.

이용국이 나에게 김백룡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때로부터 이태가 지난 1934년 겨울에 아는 녕안현 팔도하자에서 그를 만났다. 그때 김백룡은 거기서 구당서기로 공작하고 있었다.

나를 만난 자리에서 김백룡은 소비에트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다가 우경투항주의자의 감투를 쓰던 1932년 가을을 쓸쓸하게 회상하였다. 이미 동만에서 좌경적인 소비에트 노선이 시정되고 인민혁명정부들이 유격구의 정사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오랜 때여서 그는 좌경망동적인 소비에트 노선의 제창자들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비평하였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아주 똑똑하고 대가 바른 동무였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되어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게 되었는가를 물었다.

김백룡은 ≪그 이유란 간단한 겁니다. 가야허에 가 있을 때 농민들과 담화를 많이 하였는데 그들이 소비에트가 무엇인지 그 말뜻조차 모르지 않겠습니까. 인민이 알지도 못하는 소비에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무모한 짓 같아서 시기상조라고 했지요.≫하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소왕청일대전경

인민들이 소비에트란 무엇인지 몰랐다는 그의 말은 그 당시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솔직한 대답이였다.

구 소비에트 선거에 참가했던 가야허의 노인들은 소비에트를 속새포와 혼돈하고 있었다.

≪소비에트가 나온다 하기에 왜놈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속새포가 나오는가부다 하고 책상만 쳐다보았더니 웬걸 속새포는 안 나오고 붉은기가 나옵디다 그려.≫

그 노인들의 말이였다.

왕청 2구 소비에트 창립 행사에 참가한 마촌 사람들 가운데는 소비에트를 쇠버치로 해석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어떤 고장 사람들은 소비에트 선거에 참가하러 가는 유권자들에게 ≪소비에트가 어떻게 생긴 겐지 잘 보고 오게. 큰 겐지 작은 겐지.≫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하며 또 어떤 고장 사람들은 ≪소비에트란 어른이 온다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야단났다.≫고 하면서 광주리를 들고 나물캐러 떠났다고도 한다.

인민들이 이처럼 소비에트에 대하여 제나름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만 사람의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적인 주석을 가하게 된 것은 무식이 빚어낸 응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군중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전사업을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해설제강이라는 것은 대체로 제목부터가 대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외래어 투성이로서 ≪소비에트란 무엇인가?≫, ≪꼴호즈란 무엇인가?≫, ≪꼼뮨이란 무엇인가?≫하는 따위의 것들이였는데 소비에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선전원들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다.

좌경의 독소에 중독된 급진분자들은 이처럼 인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소비에트를 도처에 세워놓고 노동자와 빈고농의 독재를 부르짖으며 혁명이 다 된 것처럼 허장성세하였다.

나는 왕청동무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동장영을 정권형태 문제에 대한 논쟁에로 끌어들였다.

≪간도 일각에서 혁명정권이 태어나 온 세상에 자기 존재를 선포한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장영동지, 나는 이 소비에트노선 때문에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동장영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통일전선노선이 침해를 당하다니 그건 무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명월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는 우리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반일애국세력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울 데 대한 노선을 내세우고 그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몇년동안 국내와 만주지방에서 피어린 투쟁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많은 군중을 묶어세웠습니다. 그 군중들 속에는 애국적인 종교인도 있고 상공인도 있고 하급관리들도 있고 심지어는 지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의 시책은 그들을 일률적으로 배척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혁명을 지지하거나 동정하던 그들이 오늘은 혁명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조중 인민들 사이의 관계도 다시금 악화되였습니다.≫

동장영은 웃으면서 내 팔목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본질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에트 정권이 인민들이 바라던 것을 죄다 해결해주었다는데 있습니다. 혁명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을 위시한 절대다수의 군중은 소비에트 정권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겁낼 게 있습니까. 노동자와 농민만 있으면 어떤 혁명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소수의 손실은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왜 밀어던지겠습니까. 우리의 총적인 전략은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절대다수의 대중은 모두 쟁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하였습니다. 5.30폭동을 계기로 저락되였던 공산주의자들의 체면도 가까스로 회복하고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조성된 불화도 천신만고하여 제거해 놓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또 조성되였습니다.≫

≪**김일성**동지. 너무 비관적으로 문제를 고찰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는 원래 만사를 낙관적으로 대하는데 버릇된 사람입니다. 혁명은 물론 앞으로도 승승장구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장영 동지, 동만에 조성된 좌경적 시책의 후과에 대해서는 심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만당은 이 문제에 대해 응당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책을 검토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책을 검토하고 그 시책을 낳고 있는 정권형태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동장영은 그 말을 듣자 미간을 모으고 못마땅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일성**동지, 소비에트 정부의 시책에는 물론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형태는 불가침입니다.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것은 중앙의 노선입니다.≫

논쟁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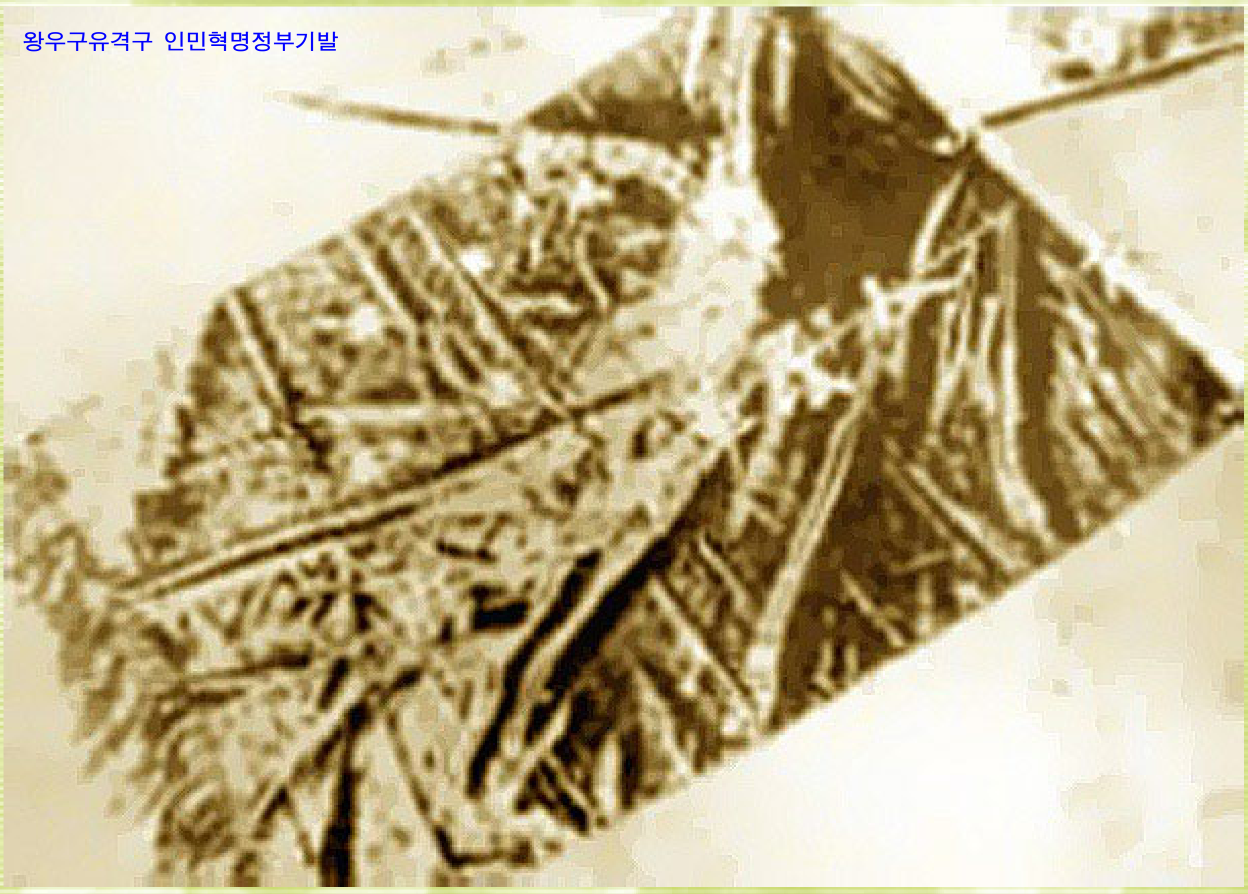
동장영은 자기의 주장의 고집하면서 소비에트를 절대화하였다. 그는 성미가 온화하고 인정도 있는 사람이였으나 벽창호였다. 지식이 풍부한 반면에 사고와 실천에서는 교조를 많이 범하였다.

그후 나는 다시 동장영과 함께 정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날의 논쟁에서 중점적으로 토의된 것은 소비에트를 유지하는가 포기하는가, 포기한다면 새로운 정권형태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수행해야 할 동만지방의 유격구들에서 소비에트가 실정에 맞지 않는 정권형태라는 것이 생활적으로 증시된 조건에서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결단을 내려 정권형태를 바꾸고 인민이 구미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 혼란상태에 빠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동장영을 설복하였다.

≪소비에트가 동만의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소비에트의 일부 시책이 혁명에 손실을 주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전번에 **김일성** 동지는 소비에트노선때문에 통일전선노선이 침해를 당한다고 걱정하였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였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동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는 나로 하여금 **김일성** 동지의 그 경고를 심사숙소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소비에트를 대신할 만한 정권형태를 확정짓지 못하였습니다.≫

특위서기의 견해에서 생긴 변화는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날의 동장영은 군중의 기세가 높은 혁명의 고조기에는 소비에트만이 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한 정권형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왕년의 그 고집스런 특위서기가 아니였다.



왕우구유격구 인민혁명정부기발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노동계급의 정권형태는 꼼뮨과 소비에트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장영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마치 당신이 나를 납득시킬 만한 형태를 찾아낸다면 나도 구태여 반대하지 않겠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실정에 맞는 형태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봅시다.≫

≪우리가 만든다구요? 슬프게도 나는 그럴만한 천재가 못됩니다. 맑스주의 고전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절대화하고 거기에 자기를 얽매려는 그런 부류의 견해와 입장에 나는 동감을 표시할 수 없었다.

≪동장영 동지. 프랑스 노동계급이 꼬뮨을 내올 때 그 무슨 고전을 참고했던가요? 러시아의 소비에트가 맑스주의 창시자들의 고전에서 명시된 정권형태였던가요? 소비에트를 어찌 한 천재의 두뇌가 낳은 산물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인민이 요구하지 않고 러시아의 현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소비에트는 역사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장영은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큼직한 담배 쌈지를 꺼내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 물고 나에게도 권하였다. 그는 유격구를 돌아다닐 때에도 노상 손에 담배쌈지와 골통대를 들고 다녔는데 노상에서 농민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 피우라고 권하는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소박한 성품 때문에 유격구 인민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그는 겨울이면 농민들이 쓰고 다니는 개털모자를 쓰고 다녔다.

나는 동장영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그가 내 말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였다.

(내일 계속)

시

선 군

동서고금
사전에도 없던 말
백만년을 헤아리는
인류사에 처음 나온 말

겨레운명의 구호로
자주신념의 노래로
이북의 하늘가에 메아리친다
선군정치! 선군영도!

선군-
불과 두 글자여도
이 겨레 운명이 함축되어 있고
이 겨레 번영이 담보되어 있나니

조종의 산 백두에서
남해의 한끝까지
3천리 보금자리 품어주는
겨레사랑 선군이다

창끝처럼 예리하게
칼날처럼 사정없이
양키침략자들을 강타하는
겨레수호 선군이다

불장난을 즐기는
약육강식의 미국놈들에겐
힘의 총대맛을 보여줘야 했기에

오만무례한 그놈들과는
겨누면 겨눈대로
쏘면 쏘는대로
사정을 보지 않는 총알
총알로만 통할 수 있기에

위대한 빨치산아들의 담력이
화약처럼 다져진 말이다
백두장군 애국의 심장에서
총알처럼 튀어나온 말이다

미국이 날치는 이 세계를 평정하는
인류의 거주지 이 행성을 지켜주는
김정일장군님시대를
새롭게 떠올린 말이여
선군정치, 선군영도여!

흠모

출판물에 비낀 위인상

태양절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에서 뷸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뜻 깊은 기념일들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축전을 실었으며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 ≪한생을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불패의 조선인민군≫ 등 제목의 글들을 실었다.

뷸레찐은 글들에서 **김일성**동지는 나라와 민족,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그이의 생애는 위대한 령장의 생애, 위대한 정치가, 령도자의 한생, 전설적영웅의 빛나는 력사로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뷸레찐은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뷸레찐은 조선인민군이 걸어 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소개하였다.

뷸레찐은 현대적군사기술로 장비되고 강력한 공격 및 방어수단을 갖춘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강철의 군대, 무적의 강군이라고 강조하였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가 뷸레찐 ≪통일≫ 2월호를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사진을 모시였다.

뷸레찐은 ≪20세기의 거인에 대한 흠모와 칭송≫,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걸출한 수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고 그이의 인품에 매혹된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인사들이 격찬한데 대하여 쓴 글을 실었다.

뷸레찐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생≫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보여 주는 사진들을 편집하였다.

뷸레찐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조국통일≫, ≪해외동포들속에서 적극화되고 있는 조국통일운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들을 실었다.

뷸레찐은 이밖에도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이라고 헐뜯으며 핵전쟁책동에 매여 달리고 있는 미국을 규탄한 글, 미행정부와 남조선의 반통일우익세력들이 통일의 앞길을 가로 막고 있는데 대하여 폭로한 만화들을 실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가정 2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5회 - 학사 한원용 선생 주체91, 4월 27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어머님이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어머님이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머님이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주체6, 1917년 12월 24일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면 오산동, 오늘의 함경북도 회령시 동명동입니다, 오산동의 아주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김정숙**동지의 일가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가는 그이의 고향집에 깃든 사연이 잘 말해줍니다. 원래 **김정숙**동지의 일가분들은 오막살이집에서 사셨는데 지주놈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값으로 그 오막살이 집마저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의 집 웃방 하나를 얻어 살게 되셨는데 그 집이 바로 오늘의 회령땅에 있는 **김정숙**동지의 고향집입니다. 이처럼 가난하게 사셨지만 **김정숙**동지의 가정은 성실하고 근면한 노동으로 생활을 개척하고 고결한 인품과 의리심을 지니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을 가풍으로 삼아 왔습니다. 가정의 이러한 가풍은 **김정숙**동지로 하여금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시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혁명투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설 수 있게 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찍이 부모님들과 오라버님의 애국주의 교양과 혁명적인 영향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모순에 찼던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체험과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김정숙**동지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우신 열렬한 혁명가이셨습니다. 지난 시기 수많은 역사가들과 문인들은 혁명가의 한생은 바치는 것이라고 하면서 혁명가들의 희생과 헌신, 고귀한 삶의 자욱에 대해서 노래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숙**동지처럼 자기 자신을 깡그리 혁명에 바친 그런 위대한 혁명가에 대해서는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혁명가들에 대한 자료 수집으로 한생을 보냈다고 하는 외국의 한 여류 작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혁명가들 역시 인간이기에 자기를 희생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동지처럼 인간으로서 희생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깡그리 다 희생시킨 그런 위대한 혁명투사를 나는 처음 알게 되였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김정숙**동지의 혁명가적 풍모에 대한 단적인 실례입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의 귀감,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위대한 개척자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의 충실성에 대해서 **김정숙**동무는 나에 대한 충실성이 매우 지극한 동무였다고 뜨겁게 회고하셨습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위대한 개척자로서의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가장 견결히 옹호고수해 나가신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례는 많은데 주체28, 1939년 청봉이라는 밀영에서 있은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밀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에 대한 학습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에서 당시 밀영 책임자로 있던 엄광원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저없이 일어나시여 이자의 도피주의적이고 투항주의적인 견해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셨습니다. 책임적인 지휘에 있는 이자의 궤변을 반박해 나선다는 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특히, 엄광호가 자기의 반혁명적 정체를 가려보려고 무슨 간첩단 사건까지 조작해서 그이를 비롯한 여러 대원들을 간첩으로 몰아 체포하고 악랄한 고문을 들이댈 때에도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다라고 외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끝까지 고수하셨습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위대한 개척자로서의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최상의 수준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목숨바쳐 호위해 드리신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8권에서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김정숙은 여러번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육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쓰셨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는 길에서는 천번 중 단 한번의 실수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자신의 트팀없는 신조로 삼으셨습니다. 실례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체29, 1940년 6월 하순에 있은 안도현 대사하치기 전투때였습니다. 위대한 수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김정숙은 여러번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육탄이 될 준비가 되여 있었습니다.

령님께서 친솔하신 부대가 대사하치기 부근의 행군하던 중 매복해 있던 **대 놈들과 맞닥들게 돼서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하게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리한 정황을 침착하게 역전시켜 나가셨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곁에서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시면서 호위임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5-6놈들의 적들이 무성한 갈밭속에 몸을 숨기고 위대한 수령님께로 접근해 왔습니다. 적들의 총구가 위대한 수령님께로 돌려지는 그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 동지하고 다급히 외치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 한 몸으로 막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딱총으로 적들을 순식간에 쏘아 눕히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에 조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간직하신 호위장군의 숭고한 모습이였습니다.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자세는 조국이 광복된 후에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참으로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 전 노정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해 오신 성스러운 혁명활동 노정입니다. 주체86, 1997년 12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김정숙**동지 전기가 출판되였는데 이 전기 편찬에 참가한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노정을 따라가면서 묻혀있던 사실들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그런데 다 종합해 놓고보니 어머님의 한생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백과전서였습니다.≫ 이것은 한 역사가의 흠모의 목소리만이 아닌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한생에 대한 역사의 칭송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는 뛰어난 군사적 지략을 지니신 백두의 여장군이십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성의 몸으로 일찍이 총을 잡으시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 나서셨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4, 1935년 9월 혁명선열들의 피가 스며있고 인민들의 조국광복 염원이 어려있는 총을 잡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 다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다지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날에 하신 맹세를 지켜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수많은 전투기간들에서 백두의 여장군으로서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장군으로서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사격술입니다. 원래 사격술은 무술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면서도 동시에 장군으로서의 풍모를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표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동지의 신묘한 사격술은 우선, 총탄 한발이 그대로 적병 한놈 잡는 사격술이였다는 것입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대원들은 전투가 끝난 다음 전투총알을 **김정숙**동지의 탄피를 놓고서 그이께서 적을 얼마나 잡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것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공인된 사실이였습니다. 그이의 사격술은 또한, 전투의 혼잡 속에서도 일본놈들만 골라가며 맞추는 사격술이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하는 전투장에서 마치 총탄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골라가며 적을 쏴 맞힌다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김정숙**동지의 사격술은 그처럼 신비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화도 생겨났습니다.

주체26, 1937년 음력 설날에 홍두산 전투가 있었는데 일본놈들은 전투 후 살아서 돌아온 위만군 장교들에게 크게 횡포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투에서 죽은 것은 일본 장교놈들 뿐이기 때문이였습니다. 일본놈들은 위만군 장교들에게 빨치산의 탄환에는 황군만을 따라다니는 지남침이라도 달렸는가 그런 지남침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이 유격대와 내통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구 때리고 차고 했습니다. 홍두산 전투는 **김정숙**동지께서 일본 장교놈들만을 골라가며 죽인 것으로 해서 유명해졌고 오늘까지 전설처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이의 사격술은 또한,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서도 쏘면 쏜대로 맞추는 신비한 사격술이였습니다. 특히 **김정숙**동지는 밤에 목표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쏘면 쏜대로 명중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27, 1938년 봄 어느날 밤에 진행된 전투에서 신비한 사격술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금반지를 표창으로 수여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김정숙**동지는 신묘한 사격술을 지니신 백두의 여장군이십니다.

다음으로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향도성,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 키우신 혁명의 어머님이십니다. 예로부터 걸출한 명인의 뒤에는 걸출한 어머니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숙**동지의 햇빛같이 따사로운 품은 우리 장군님께서 위인으로서 성장하실 수 있게 한 요람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 키우신 것은 **김정숙**동지께서 우리 민족과 진보적 인류 앞에 남기신 가장 커다란 공적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키우신데 대해서는 앞으로의 강의들에서 구체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충신이시고 백두의 여장군, 혁명의 위대한 어머님이십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일가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
황승섭 선생 - 주체91, 4월 28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와 관련한 명언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내놓으신 명언들을 사상별로 갈라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시간 학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겠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과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영도하시면서 비상한 사상이론 활동과 정력적인 탐구로 인류 명언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위대하고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명언의 보물고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청강생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이미 여러분들과 친숙해진 김도형 선생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명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와 관련한 명언들과 관련해서 김도형 선생과 질의응답의 방법으로 학습하자고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와 관련해서 내놓으신 명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와 관련된 명언들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와 관련한 명언들 가운데서 몇 수의 명언만을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언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는 자주이지 예속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지향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배반은 인민에 대한 배반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기본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본이며 사람의 사상이 기본이다.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사상에 의하여 향도되고 사회주의 사상을 기본 추동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 것이 역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사회주의의 변질은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고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송두리채 말아먹게 된다.
사회주의의 변질은 계급적 변질이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집단주의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투쟁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의 투쟁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개인주의에 대한 집단주의의 우월성이다.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
사회주의가 우리 인민의 생명이라면 주체사상은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는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낙원이라면 자본주의는 인민대중의 무덤이다.

이밖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선 사회주의와 관련해서 내놓으신 명언들이 많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명언들은 참으로 금옥같이 귀중한 명언중의 명언들입니다. 그 가운데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명언이 있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명언을 언제 내놓으셨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3, 1994년 11월 1일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불후의 고전적 로작을 발표하심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과학적 정식화를 내려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전 쏘련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놓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그 무슨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어댔고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추악한 배신행위를 변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여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해 일시 가슴 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해서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엄숙히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두 개의 말마디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참으로 심오하고 위대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 명언에는 사회주의가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사회발전의 근본이치를 반영한 진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시대는 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역사발전의 필연적 요구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활동해야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집단주의를 본성적 요구로 합니다.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활동하는 것이 사람의 생존방식입니다. 사람의 자주적 요구가 집단주의를 통해서만 훌륭히 실현할 수 있는 것만큼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사람의 자주적 본성에 부합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입니다. 역사의 반동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역사의 흐름을 되돌려 세울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당했지만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의연히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현대수정주의, 현대사회민주주의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해 일시 가슴 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해서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것은 바로 그것이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사회발전의 근본이치를 반영한 가장 정확한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똑똑히 알립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회주의와 관련한 명언들 가운데는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한 명언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사상에 의하여 향도되고 사회주의 사상을 기본 추동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 것이 역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명백히 밝혀주는 위대한 명언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명언들에서 잘 알 수 있은 바와 같이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며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 추동력입니다.

듣고보니 사회주의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이 사회주의 사상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선행이론에 기초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한 사정과 관련됩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선행이론은 혁명투쟁에서 물질경제적 요인을 기본으로 보면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을 혁명의 근본방도로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사상이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물질경제적 조건을 위주로 해서 전개된 선행한 사회주의 학설의 역사적 제한성이 극복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 말로 비범한 통찰력과 천재적인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사회계와 진보적 인류는 사회주의 위업을 견결히 수호해 가시고 그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끝없이 칭송하며 열렬히 흠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만 실례로 든다면 전 세계에 있어서 민간문제 연구학자 연맹위원장이며 모스크바 종합대학 철학교수인 알렉산드로 꼬발로브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비범한 통찰력과 고명한 이론적 분석력을 지니신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라고 격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역사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인 사회주의 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사상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통찰력과 고명한 이론적 분석은 비상히 중요한 것이다. 올바른 혁명이론이 있을때 혁명운동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탁월한 영도자, 조직자이실 뿐아니라 천재적인 사상이론가이신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복잡다단한 현세계에서 시대의 방향타를 틀어쥐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는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이런 명언도 내놓으셨는데 그럼 이 명언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명언에는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히고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적 운동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세웠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체계화된 사회주의는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면 주체사상에 의해서 밝혀진 사회주의 이론의 그 과학성 진리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에 의해서 확증됐습니다. 우리 인민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뒤떨어진 처지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벌리기 시작했고 남달리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언제나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결속시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기본 고리로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길을 빛나게 개척해 올 수 있었고 오늘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끄떡하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습니다. 실천적 경험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가장 과학적이고 생활력 있는 사회주의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학습이 청강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에 관한 명언을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본 조선인민군

요즘 한반도정세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호전광 부시의 ≪악의 축≫발언이 연발되고 이북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정한 ≪핵태세검토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말 한미통합군사훈련이 강행되었다.

지난 시기 최대규모로 알려졌던 ≪팀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의 규모보다 3배가 넘는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근 70만의 미군과 한국군이 참가한 한미통합군사훈련에는 각종 현대적인 최첨단군사장비들이 동원되었으며 그것도 서울이북지역 휴전선근방에서 진행되었다.

정세분석가들은 이같은 훈련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그 저의가 무엇인가, 북에 대한 위협인가, 한미연합군의 전력과시인가 등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대규모 침략전쟁연습으로써도 결코 이북을 놀래울 수도, 굴복시킬 수도 없었으며 위력과시도, 북에 대한 경고로도 되지 못했다.

조선인민군은 그 어느 제국주의침략군도 쳐이길 수 있는 강군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30년간 군생활에 몸담았던 나는 한국군 장병들 속에 조선인민군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으며 인민군의 전력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냉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희세의 영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솔하시는 조선인민군은 사상도, 전법도 위대하고 무장수준도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는 세계 최강의 무적필승의 강군이다.

조선인민군은 자기 사명감에 투철한 군대이다. 인민군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며 자기 수령, 당, 조국과 민중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민군은 외래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자유와 평등, 행복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그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와 수령을 지키고자 결사의 각오로 싸울 것이다.

인민군은 정신무장이 잘되고 사기도 높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항복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무기, 전투기술기재도 좋아야 하지만 전투의식, 사상의식이 높아야 한다. 현대전과 현대적 무기들은 지난 전쟁의 무기보다 군인들에게 훨씬 더 높은 정신력 즉 용감성과 강의성, 대담성과 연대성을 요구한다. 무기의 실효성도 이 무기를 손에 잡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도덕적 품성에 의해 결정된다. 전쟁역사는 군대의 도덕상태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기와 육체적, 정신적 역량이 더 효과적으로 발휘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

조선인민군은 고위간부로부터 말단 사병에 이르기까지 수령결사옹위정신, 자폭정신, 희생정신이 투철하다. 이것이 인민군 군인들이 지닌 인생관, 사상관이다. 인민군은 최고사령관의 주위에 똘똘 뭉쳐 있고 관병일치가 잘된 군대이다. 이처럼 인민군은 정신무장이 잘되어 있다.

육사출신의 정훈장교 박모중령이 ≪남북간 군사력균형에서 이남이 이북에 비해 눈에 띄게 열세한 부문은 정신전력의 차이다≫라고 한 말은 결코 우연치 않다.

또한 인민군의 사기는 대단히 높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전쟁승리의 요인의 하나는 군장병들의 사기이다. 인민군은 고위 장성으로부터 말단 사병에 이르기까지 미군을 비롯한 제국주의 군대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모든 인민군 군인들이 미제침략군이 북침전쟁을 도발한다면 단매에 요정낼 자신감을 갖고 만만하게 보는 것은 이북군의 전통이다.

인민군의 전통적 사기의 본질은 정예강군을 육성하신 **김정일**장군을 모시고 있다는 자긍심,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 자기 무기가 적의 무기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성에서 나온 것이다.

인민군은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격멸할 만능의 지략과 주체전법을 소유하고 있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천재적 지략과 무비의 담력, 강철의 의지는 이미 온 세상에 과시되어 있다.

인민군은 훈련도 잘되고 정신무장도 잘되고 사기도 높으며 전법도 위대하지만 무장수준은 세계의 최고 수준이다.

한국군 합참의 작전계통에 근무하는 한 현역장교는 ≪북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북의 군사력은 6.25전쟁 당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양과 질에서 엄청나게 발전했다. 인민군의 무장장비는 모두 현대화되었다. 한국군은 무장장비의 95%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총기로부터 미사일까지 모든 것을 자체로 생산한다≫라고 말했다.

북을 건드리는 침략자들은 이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섬멸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며 그러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추고 있다는 이북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북이 계속되는 미국을 필두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끈질긴 고립압살과 제재조치에 설상가상으로 혹심한 대자연재해까지 겹쳐 엄혹한 도전과 시련을 겪어야 했고 특히는 호전광 부시가 ≪악의 축≫발언과 대북강경정책을 펴며 북침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끄떡하지 않고 강성대국건설에로 매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영도아래 육성된 무적필승의 강군 조선인민군이 있기 때문이다.

인민군을 세계 최강군으로 육성하신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선군영도가 있기에 부시와 한국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기도는 격파분쇄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은 영원히 영예롭게 수호될 것이다.

군사평론가 이대진

구국전선 주체91, 4월 25일

전갈에 대한 생각

각계 민중속에서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선군정치에 의해 일당백 무적강군으로 변모된 조선인민군의 막강한 무력을 놓고 감탄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요. 정치군사전문가 김신호씨의 글을 보내드립니다. ≪전갈에 대한 생각≫.

이북의 건군절을 맞을 때마다 나의 눈앞에는 하나의 형상이 떠오르곤 한다.

****진 몸에 16에서 25개의 날카로운 이를 가진 자그마한 동물. 이 동물의 이름은 전갈이다.

내가 전갈을 이북의 인민군과 관련시켜 생각해보게 된 것은 며칠전 재일군사예술평론가인 김명철씨의 수기 ≪**김정일**장군의 통일전략≫을 읽은후부터이다.

그는 책에서 영웅무쌍한 이북군을 전갈에 비유했다.

전갈은 길이가 60미리 안팎으로써 눈에 차지 않을 정도로 작다. 그러나 전갈보다 몇십, 몇백배의 몸통을 가진 동물들도 그와 싸우기를 두려워하면서 감히 맞서지 못한다. *** 이 동물이 적수에게 치명타를 주는 독침을 가지고 끝까지 결사적으로 싸우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책을 읽으면서 이북군이야말로 신통히도 전갈과 같다고 공감했다.

이북의 전력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전갈의 독침같이 위력한 것이다.

정치군사전문가로써 오랫동안 대북사업분야에 종사해온 나는 이북군의 화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북의 전방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늘, 땅, 바다 그 어디서든지 적군과 접전을 벌여 일거에 소멸할 수 있다. 설사 지구의 한끝이라고 해도 ***** 정확한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으며 그 타격력에는 한계가 없다.

과거 클린턴행정부시기 이북과의 개전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너무도 엄청난 손실액이 소요되어 대북전쟁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됐던 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이북군을 전갈에 비기는 것은 단지 우수한 병기때문만이 아니다. 보다는 군장병들이 소유한 정신력에 있다. 결사옹위, 자폭정신 등으로 일컬어지는 이북군의 정신적 병기. 그러한 병기를 소유한 나라는 지구촌 그 어디도 없다. 이 병기의 파괴력은 핵무기를 능가한다.

미국은 이북군의 정신력앞에 대항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어떤 최첨단 컴퓨터로도 측정할 수 없고 가장 정밀한 레이다에도 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은 이북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숙명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세계유일의 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도 무서워하는 이북군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군사상론의 한 근원이고 빛나는 승리이다.

그분께서는 무장력의 2대요소인 병기와 군인에서 기본은 군인이며 특히 장병들의 정신사상상태가 결정적이라는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제시하셨다.

선군영도의 길에서 쪽잠과 주먹밥으로 군장병들의 심금을 울리시며 전군에 자기 최고사령관에 대한 무한한 충정, 결사의 의지, 무비의 영웅성, 필승의 신념이 나래치게 하셨다. 그래서 장병 한사람 한사람이 말그대로 작렬하는 총폭탄용사로 되게 해주셨다.

군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가장 걸출한 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이북군은 천하무적의 강군이다.

모두가 말 그대로 전갈의 대군이다.

이 천하무적의 강군이 있어 한반도의 평화는 굳건히 수호되고 있다. 평화통일의 밝은 미래도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단상 - 구국의 소리
조선인민군창건 70돐 특집방송

반미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자

아시다시피 호전적인 부시행정부에 의해 한반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짙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북을 핵공격하게 되면 그 피해는 북과 남을 가릴 수 없게 되고 우리 민족은 공멸하게 됩니다. 민족이 공멸한 다음 불모의 땅에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도 통일을 할 사람도 없게 됩니다. 민족이 있고야 통일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국을 반대하는 건 민족의 생사와 관련되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고 할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첫순서로 ≪반미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자≫ 오일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계층 민중은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한총련이 민족자주쟁취를 위한 백만학도 집중투쟁기간을 선포하고 반미공동투쟁을 전개한 것을 비롯해서 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여러 단체들과 각계 민중이 반미공동집회를 열고 반미투쟁을 벌인 것은 그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던 한반도가 부시를 수괴로 하는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의해 전쟁의 먹구름에 휩싸이고 있다고 하면서 부시행정부의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도처에서 시위와 집회 등 여러가지 형태의 반미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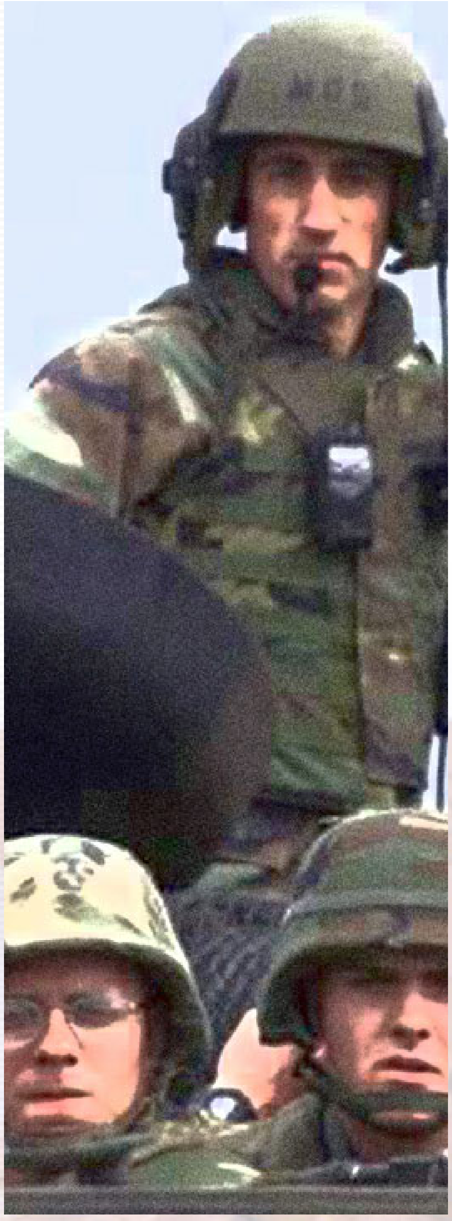
특히 부시가 ≪악의 축≫망언을 거듭 떠들어대고 있고 미국의 범죄적인 ≪핵태세검토보고서≫의 내막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각계 민중은 그것이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목적한 흉악한 북침핵전쟁책동이라고 강력히 규탄배격하며 연일 반미반전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반미반전투쟁을 벌이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고 우리 민중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반미반전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는 여기에 빼앗긴 자주권을 되찾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이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대한반도침략정책에 따라 대북적대시정책과 반북고립압살책동을 강행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핵재난까지 덮씌우려고 무모하게 책동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반미반전반핵투쟁을 벌이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며 우리 민족, 민중앞에 부과된 중대한 임무입니다.

각계층 민중이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와 임무를 망각하고 미국의 가공할 핵전쟁책동을 수수방관한다면 6.25전쟁때와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불행과 재난을 겪게 될 것이며 따라서 반미반전반핵투쟁에 주저없이 과감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시기 반미반전반핵투쟁이야말로 최대의 애국이고 민족의 공멸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소속과 단체의 차이를 초월해서 미국의 북침전쟁책동,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섬으로써 민족구성원으로써의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할겁니다.



무엇보다도 부시미행정부의 ≪핵태세 검토보고서≫에 작성된 북에 대한 핵공격계획의 흉악한 목적과 그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어 모든 국민들이 반미의 기치아래 반전반핵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미운동단체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미투쟁을 벌여나가는데서 서로 연대를 하고 연합을 이룩하여 모든 단체, 모든 국민들이 거족적으로 일어나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반전반핵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미투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우리 민족, 민중의 단결에 있습니다. 반미를 지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로 굳게 뭉쳐 단결된 위력으로 반미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북침전쟁책동, 핵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동족을 핵참화에로 밀어넣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과 호전분자들의 범죄적인 전쟁책동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우익보수세력과 호전분자들은 부시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적극 지지하며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에 추종하면서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미반전반핵투쟁을 벌여나가는 것과 함께 이회창과 극우보수세력과 호전분자들의 악랄한 범죄적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도 벌여나가야 합니다.

각계층 민중은 오늘의 이 엄중한 사태를 직시하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희생물로 삼고 한반도전체를 황폐화시키려는 미국의 악랄한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반미반전반핵투쟁을 줄기차게 과감히 벌여나감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나가는데서 커다란 기여를 해야할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미반전반핵투쟁에 적극 나서는가 안나서는가 하는 문제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고 할 수 있죠.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미반전반핵투쟁에 적극 동참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저지시켜야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8일

≪F-X사업≫은 감사원도 못 건드리나

≪국민 80%가 반대하는 F-X 사업에 대한 감사를 왜 못하겠다는 거죠?≫

4월29일 낮 12시경, 서울 삼청동 감사원 정문 앞. 국방부 F-X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이하 자통협) 회원들과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감사원장을 직접 만나 F-X사업 감사의 절박함을 알리겠다는 자통협의 요구에 감사원쪽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가로막고 나선 것. 자통협측이 ≪미리 공문도 보내고 사전연락을 했는데 서한 전달을 가로막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하자, 감사원 직원은 ≪남의 집에 올 때도 미리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맞섰다.

이에 민족통일회의 김수남 대표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감사원이 왜 국민의 길을 가로막느냐≫며 반발했다.

자통협은 이에 앞서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국방부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오후 3시 감사원에서 열리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에서 F-X사업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측은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상 F-X 관련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바 있다. 이에 자통협 상임의장 홍근수 목사는 ≪감사원은 부정과 불의에 대해 공정하게 감사하는 곳≫이라며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F-X사업에 대한 감사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통협 김종일 사무처장 역시 ≪라면박스 하나 훔쳐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라면박스 보다 훨씬 거대한 F-X사업에 대해서는 왜 조사 못하겠다는 거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자통협은 F-X사업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가 필요한 이유로, ▲F-15K선정으로 이한 막대한 국익 손실 ▲선정과정에서의 불법 로비의혹 ▲남북화해협력정책 훼손 ▲부시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국가주권 포기 행위 등 모두 4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 정문 앞에 주저앉아 회의가 열리는 오후 3시경까지 시위를 벌이던 자통협 회원들은 감사원장이 끝내 면담을 거부하자 국민감사청구심사회의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석하려던 경실련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 감사원 회의에서는 F-X사업 국민감사청구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자통협 김현진 홍보부장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으나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로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자통협측은 ≪만약 감사원이 F-X 감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꾸준한 집회와 투쟁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가겠다≫고 경고했다. 자통협은 4월30일 오후 12시부터 대통령의 F-X 재가거부를 요구하는 집회를 청와대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전미진 기자
2002/04/29 오마이뉴스

F-15K선정 철회 박순희 대표 중상 사과

지난 4월 19일,≪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 공동행동≫소속 대표단이 국방부의 F-15K 내정을 강력히 항의하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담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였다가 경찰의 강력한 제지로 인하여,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박순희 대표가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국의 무기강매로 인하여, 국방부가 자존심마저 버리며 F-15K를 선정함으로써,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민간인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청와대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방문하였던 인사들을 경찰을 통해 방문을 제지하였다고 하니, 더욱 기가 찰 따름이다.

미국의 F-15K 선정 강요는, 이 나라를 긴장으로 몰고가는 미국의 전쟁책동의 일환이며, 미군수산업을 위한 우리 나라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문제이다. 또한 국방부의 자주권을 짓뭉개는 것으로써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 공동행동≫ 대표단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외교안보수석과의 만남을 계속 늦추더니, 결국 경찰을 통해 방문을 강제 제지함으로써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통일연대는 이에 대해 청와대가 경찰의 강제제지 및 박순희 대표 중상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통일연대는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F-15K선정에 대한 재가를 거부하고 F-X사업을 전면 재고할 것을 주장한다.

F-15K 선정은 앞서 말했듯이 국가적 자존심을 짓뭉개는 것이기에 다시금 재고되어야 하는 문제다. 국가적 자존심을 버리고, 미국의 강요와 압력에 자주국방마저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고물군수물자창고가 될 뿐아니라, 전쟁위험을 몰고다니는 미국의 용병이 되어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연대는 국민의 의사가 외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가 박순희 대표 중상에 대해 사과하고, F-15K 선정을 철회함으로써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없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자주적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를 희망한다.

2002년 4월 28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부시 전대통령 내달 5일 방한

조지 W 부시 현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 전 대통령이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한은 서울에서 열리는 다임러 크라이슬러사의 국제자문단 회의 참석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방한기간에 회의 참석 및 국내 자동차업계 등 경제계 인사 면담 외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남북문제 등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지도자와의 대화≫ 행사 참석차 방한한 적이 있다.

황재훈 기자
2002/04/29 연합뉴스

국방백서 《주적》 개념 논란 예상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과 관련 정부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체표현에 대해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해 진보.보수 진영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현재의 《주적》 개념이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하에 5월 말 발간 예정인 《2002국방백서》에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대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주적》론은 한반도에서 비상경계령을 발효케 하는 핵심적인 문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를 위한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를 조성하는 문제 ▲민족의 허리를 이어내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군사보장서 합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주적》개념의 삭제를 주장했다.

또, 대북 전문가들도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주적》 개념에 대한 논의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종석(세종연구소) 박사는 지난 19일,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욱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주적 문제는 단순한 명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북한》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라며 《《주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전반은 아니더라도 군사 분야만큼은 큰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주적》 문제가 제기하는 핵심은, 《남한》이 《북한》을,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며 《《주적》 문제의 핵심은 바로 표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팀장인 서주석 박사도 《현재 《북한》은 《주적》 개념의 철회가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2002년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수록될 경우,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성사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 정세현 통일부 장관 등이 주적론 삭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반면, 국방백서 발간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주적론 삭제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자유총연맹 등 보수세력도 잇따라 반대입장의 논평을 내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한나라당은《《주적개념 수정》 안된다》라는 논평을 통해 《북측이 우리를 가리켜 《원쑤》니 《과녁》이니 무시무시한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셈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적개념을 수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북측의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도 29일,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적은 《북한》》이라고 명시된 국방백서의 주적론을 삭제하거나 대체키로 한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가안보마저 대북퍼주기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김대중 정부야말로 위험한 《안보 불감증 정권》·《안보 미숙아 정권》이다》고 논평했다.

같은 날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도 성명을 통해 《군사적 대치와 긴장관계 지속으로 남북간 신뢰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적》 개념을 삭제 또는 대체할 경우 극도의 안보혼란이 예상》된다며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송정미 기자
2002/04/29 통일뉴스

2002 국방백서, 《주적》론 삭제하라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논평을 통해 《현재까지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에 대한 삭제. 대체 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5월 말 새롭게 발간될 2002 국방백서에 《주적》론 대체 및 삭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주적》론 삭제 없이 한반도 평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지속될수 없다는 사회여론이 형성되면서 사회각계 단체들은 《주적》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민족화해와 단합의 시대로 진입한 지금, 《주적》론은 있어서도 안되며, 더 이상 있을 명분도 없다.

《주적》론은 김일성주석 서거이후, 1995년 이북 붕괴론을 주장하며 대북강경긴장고조정책을 강화한 김영삼정부시절부터, 국방백서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민족의 대립과 대결은 더욱 격화되었다. 즉 《주적》론은 김영삼정부의 대북대화거부정책, 민족대립과 대결정책의 산물으로 생겨난 개념이다.

정세는 6·15남북공동선언채택으로 민족화해와 단합의 정세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적》론은 당연한 사회적 합의인 양 호도되어 왔다. 최근에도 9.11테러이후 미국의 전세계를 향한 전쟁정책이 강화되면서, 《주적》론은 한반도에서 비상경계령을 발효케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를 위한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를 조성하는 문제로 되고 있다. 또한 《주적》론은 또한 민족의 허리를 이어내는 경의선, 동해서 철도, 도로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군사보장서 합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적》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연대는 국방부가 5월 말 새롭게 발간될 2002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 국민들은 F-15K를 선정한 국방부에 대해 《국민을 배신한 국방부》라며 우리국민을 위한 국방부인지, 외세를 위한 국방부인지 정체성을 똑똑히 밝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며, 민족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주적》 개념을 원치 않는다. 국방부가, 진정으로 민족의 안전과 자주성을 추구하는 국방부라면 2002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개념을 반드시 삭제해야 할 것이다.

2002년 4월 28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이북을 적이라고 규정한 상태에서 통일은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밖에 없다.
사진은 한미합동훈련에 동원된 이남의 《국군》 병사.

주적?
사진은 조선인민군 군인.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1)

▶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지금 한(조선)반도의 정세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계속적인 공갈이다. 부시 행정부의 공갈은 제국주의 국가가 적대국들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협박전술의 전형이다. 미국 대통령 부시를 비롯하여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나서서 적대국들을 계속 협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가 작성하여 2002년 1월 8일에 연방의회에 보고했다는 핵공격에 관련한 비밀보고서, 즉 미국이 북(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일곱 나라들을 향해 핵무기를 조준하고 있다는 이른바 ≪핵전쟁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의 일부 내용을 누군가가 ≪로스앤젤레스타임스(Los Angeles Times)≫에 흘려줌으로써 일련의 협박소동은 더 험해지고 있다. 이 보고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부시가 2002년 3월 20일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조선)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다.≫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 되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공갈을 북(조선)에 대한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행동이라고 보면서,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자는 부시 행정부의 제의는 저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전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핵전쟁태세보고서≫에서 또 다시 입증되었듯이,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전쟁도발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전쟁도발의사를 가졌다고 해서 북(조선)에 대한 전쟁을 제 마음대로 쉽사리 도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미국이 북(조선)과 전쟁으로 맞붙을 경우 북(조선)의 기습적인 대량보복공격으로 참패를 당하고 정상국가로서 영영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조미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전쟁은 적어도 1백 시간 안에 승패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만일 미국이 북(조선)에 대하여 전쟁을 도발하려 할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막강한 미사일 전력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심장부와 태평양지역의 군사적 전략거점들을 집중타격하는 기습공격을 퍼부음으로써 미국의 전쟁수행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것이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체의 군사전략과 영군술≫은 조선인민군에게 준비된 고도의 집중력과 고속의 기동력을 총동원하여 순식간에 미국의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습공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1993년 초 클린턴 행정부의 전쟁도발책동으로 한(조선)반도의 정세가 전쟁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소집된 조선인민군 지휘관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만일 우리가 지게 될 때면 지구도 깨져나갈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그가 미국의 전쟁수행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영군술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모든 군사전략가들이 일치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전의 승패는 적군을 얼마나 많이 살상하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중력과 기동력을 동원하여 적대국의 전략거점들을 집중타격함으로써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키는 기습공격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도 집중력과 기동력이 떨어지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이 현대전의 실전경험이 증거하고 있는 바다.

1939년에 독일군은 폴란드를 기습적으로 침공하여 개전 18일 만에 폴란드군을 무장해제하였다. 1940년 5월 10일에 확전의 길로 나선 독일군은, 프랑스가 1927년부터 1936년까지 4백억 프랑의 예산을 들여 장장 7백50 킬로미터의 길이로 구축한 마지노 요새를 순식간에 돌파해버리고 6월 14일 파리를 점령하였다. 개전 5주만에 전쟁이 결속된 것이다. 허나 이러한 사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전사에나 나오는 고전적 경험에 속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수행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1967년 6월 5일에 이스라엘의 군사전략가 모세 다얀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선제기습공격으로 첫날 하루 동안의 전투에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세 나라의 전투기 4백52 대를 파괴하여 전쟁수행력을 마비시켰다. 이스라엘군의 전투기는 46 대가 격추되었을 뿐이다. 주변 세 나라의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킨 이스라엘군은 집중력과 기동력을 동원하여 시나이반도와 골란고원을 손쉽게 점령하였다. ≪6일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에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의 군대는 1만8천5백 명의 전사자를 냈지만, 이스라엘군 전사자는 6백79명이었다. 당시 아랍연합군은 인구 1억1천만 명, 병력 54만7천 명, 전차 5천4백4대, 전투기 9백 대였고, 이스라엘군은 인구 2백70만 명, 병력 30만 명(이 가운데 정규군은 7만 명), 전차 8백 대, 전투기 2백 대밖에 없었다.

1973년 10월에 일어났던 제4차 중동전쟁에서 미그 21기의 조종간을 잡은 조명록 공군대좌(당시)가 지휘한 조선인민군 공군특공대는 이집트 공군편대를 이끌고 기상천외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시나이반도를 되찾았다. 이 전쟁에서 판정패함으로써 한때 당대의 군사전략가라고 우쭐대던 모세 다얀은 결국 몰락하였다.

방대한 전쟁물자를 장거리 수송하여 배치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미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과 영군술에 따라 기습공격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조선)에 대한 전쟁도발의사를 가지고 있어도 제 마음대로 쉽사리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전쟁을 제 마음대로 쉽사리 도발하지 못하는 현재의 조건에서 부시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북(조선)에 대한 협박전술은 전쟁도발의 전주곡이 아니라 조미 정치협상 재개의 전주곡이다. 여기서 부시 행정부의 협박전술에 들어있는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 정치적 의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부시 행정부의 협박전술에는 장차 재개될 조미 정치협상과 관련된 저의가 깔려있다. 1994년 10월에 제네바 조미기본합의서를 채택했던 당시 미국의 협상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우리는 그 협박전술에 깔려있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다. 갈루치는 이렇게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북(조선)과 만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그러한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조미 정치협상의 현안문제들에 관련하여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2002년 2월 14일자) 갈루치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은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조미 정치협상에 나서겠다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재개될 조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내려면 어떤 행동으로 나와야 할까? 협상 이전에 협박소동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별수가 없을 것이다. 조미 정치협상이 재개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부시 행정부가 북(조선)에 대하여 공갈발언을 연달아 내뱉고 있는 숨겨진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갈루치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내려는 부시 행정부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오늘의 조미관계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북(조선)이 부시 행정부의 굴복을 받아내려는 형국으로 전세는 역전되었다.

1990년대의 클린턴 행정부 전반기에는 북(조선)에 대해서 무조건 위협과 협박, 강압과 공갈을 앞세울 수 있었지만, 지금 부시 행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 만일 북(조선)이 이라크처럼 군사력이 빈약한 나라라면, 또 만일 북(조선)이 미국의 심장부와 군사적 전략거점들에 대한 기습공격력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라면,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전반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조선)은 미국의 심장부와 전략거점들을 타격권에 안에 두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군사강국이다. 앞으로 재개될 조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내려는 부시 행정부의 주관적인 의사는 북(조선)이 신흥군사강국이라는 사실 앞에서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나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들에서 북(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신흥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을 논증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서술은 생략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언급한다.

첫째, 2002년 3월 11일 미국 연방상원 정무위원회에서 미 중앙정보국 전략 및 핵계획 담당관 로버트 월폴(Robert D. Walpole)은 ≪2015년까지 외국의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관해 증언하면서 북(조선)이 사거리 1만5천 킬로미터의 중량급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북(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가운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화학무기보다 독성이 수백 배 이상 강한 생물학무기인데, 이를테면 탄저균 10 그램은 사린가스 1 톤과 맞먹는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만일 탄저균 6 킬로그램이 들어있는 탄두를 미국 워싱턴에 투하하는 경우 워싱턴 인구 60만 명은 전멸한다고 한다.

셋째, 미국 국방부에서 탄도미사일방어를 총괄하고 있는 공군중장 로널드 카디쉬는 2002년 2월 27일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지금 북(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1주일 전에 미국에게 발사예정을 통고하고 타격목표를 밝힌 뒤에 교란장치도 없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그것을 요격할 길

은 전혀 없다고 솔직히 인정한 뒤, 현재의 미사일방어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아마도 2004년쯤에 가서야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카디쉬는 미사일방어계획이 현재 기술적 난관과 허위보고사건에 가로막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신빙성 없는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그의 발언은 미국 군사과학기술의 한계와 미국 군부의 무능을 덮어두고 미국인들을 안심시키려는 술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카디쉬의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이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의 집요한 감사활동에 의해 세상에 폭로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감사원이 18개월 동안 정밀추적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천3백80억 달러가 들어가는 요격미사일 개발사업에서 미사일 제조를 담당한 주계약자 보잉사(Boeing Co.)와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를 담당한 참여업자 티알더블유사(TRW Inc.)는 1997년 6월에 시제품을 제조하여 시험발사하였으나 요격대상에 대한 전자식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험발사가 실패했는데도 마치 성공한 것처럼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제출한 것이다.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서 중심이 되는 요격미사일 개발사업은 1998년 12월에 보잉사의 경쟁업체인 레이시온사(Raytheon)로 넘어갔는데, 현재 허위보고사건은 국방부의 국방사업범죄수사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소송을 당한 상태에 있다. (≪뉴욕타임스≫ 2002년 3월 4일자)

부시 행정부 자신도 신흥군사강국 북(조선)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무턱대고 위협과 협박, 강압과 공갈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부시 행정부는 북(조선)에 대해서는 교활한 전술을 취하고 있다. 공갈발언과 협상요구를 번갈아 내밀고 있는 전술이 그것이다.

공갈발언과 협상요구를 번갈아 내놓고 있는 전술을 언뜻 바라보면 협상과 대결을 병행하는 양면전술인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부시 행정부의 전술을 두고 마치 부시 행정부 안에서 조미관계와 관련하여 대결강행파(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 등)와 협상추진파(국무부)가 서로 갈라져서 내부갈등을 빚고 있다고 분석하는 세간의 여론은, 제국주의자들의 난폭성과 야만성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현대 제국주의의 본질과 행태를 막연한 일반 상식으로 더듬어 보려는 천박한 인식이다. 그러한 천박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서는 현대 제국주의진영이 전쟁도발의 난폭성과 지배예속의 야만성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은 협상과 대결을 병행하는 양면전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의 전술은 머지 않아 조미 정치협상에 끌려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북(조선)에 대한 공갈발언으로 협상 재개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면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이른바 ≪벼랑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방한하였던 부시가 찾아간 몇몇 곳들 가운데에는 서부전선도 포함되었다. ≪한국≫(조선)전쟁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부정사건으로 탄핵을 받아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던 리처드 닉슨만 빼고 모든 대통령들이 서부전선에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에 부시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80피트 떨어져 있는 주한미군 관측소(Observation Post Quellette)에서 미군장교를 안내를 받으며, 건너편에 있는 북측의 평화박물관에 1976년 8월의 판문점 사건 때 미군이 맞아죽은 도끼가 전시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 ≪과연 그렇군, 나는 저들이 악이라고 생각한다.(No wonder, I think they're evil.)≫고 중얼거렸다. 부시가 그렇게 중얼거린 말은, 그 이전에 군사분계선을 방문했던 두 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내뱉었던 공갈발언들에 비하면 확실히 기가 죽은 발언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1993년 7월 11일 클린턴(William J. Clinton)은 군사분계선이 가로지른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들어서서 소감을 묻는 외신기자에게 ≪북(조선)이 핵을 개발해 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종말(the end of their country)을 의미한다.≫고 공갈을 쳤다. 클린턴의 그러한 공갈발언은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1992년에 현재의 대통령 부시의 아버지인 부시(George H. W. Bush)가 군사분계선에서 ≪우리 군대의 능력, 의지에 의문을 품는 자들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한 마디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던 공갈발언 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것이었다.

클린턴은 방한 직전인 1993년 7월 9일에 방영된 미국 엔비씨(NBC) 텔레비전과 회견하는 자리에서도 ≪만약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해 이를 사용할 경우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듯이 그들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압도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다.≫고 공갈쳤으며, 남(≪한국≫)의 ≪연합통신≫(당시 이름)과 진행했던 서면대담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군사력이 두 개의 지역전쟁을 치를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으며 두 전쟁을 사실상 동시에 수행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들이 이처럼 북(조선)을 겨냥하여 공갈발언을 내뱉은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이번에 군사분계선에 나타난 부시는 이전에 두 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북(조선)에 대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강도 높은 도발적 발언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전의 부시나 클린턴은 북(조선)에 대해서 매우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공갈발언을 하면서 협상하자는 제의를 내놓지 않았지만, 오늘 부시는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려는 의사를 계속하여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클린턴의 협박전술과 부시의 협박전술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차이다.

2001년 10월 16일 부시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남(≪한국≫)의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합뉴스 독자들에게 우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자고 제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올 6월 우리는 그들이 선택하는 시간에 기꺼이 대표를 보내 그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우리 쪽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있다. 그는 ≪한국≫과 만나지 않고 있으며 우리와도 만나지 않고 있다. 아마 그가 만나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도 든다.≫

2001년 11월 27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켈리(James Kelly)는 ≪미국은 대량파괴무기, 특히 탄도미사일과 관련하여 북(조선)과 진지하게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대화의지는 진지하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29일 주한미국대사 토머스 허바드(Thomas Hubbard)는 서울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미국 정부는 북(조선)과 대화할 의지가 있고 준비도 되어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 없이 북(조선)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1월 28일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부시 행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이 북(조선)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대화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시는 2002년 3월 20일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조선)과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북(조선)이 이런 대화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상대하기 힘든 적수와 담판하는 자리에 마주앉기 전에 상대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미리 내놓으면서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정작 상대와 담판자리에 마주앉았을 때는 그 전에 내놓았던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슬쩍 거두어들이면서 자기가 그만큼 양보했으니 상대도 그에 상응하게 양보해야 한다고 우겨댄다. 이것이 미국의 ≪벼랑전술≫이 보여주는 행태다.

부시 행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이 재개될 경우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벼랑전술≫을 구사하면서 지금 내밀고 있는 문제는, 북(조선)이 군사분계선에 근접하여 배치한 재래식 무력을 뒤로 후퇴시키고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한(조선)반도 평화회담 특사 찰스 프릿처드(Charles Pritchard)는 2001년 7월 26일 미국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북(조선)의 엄청난 재래식 군사력과 전진배치가 한(조선)반도에서 가장 가시적인 위협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동맹국인 남(≪한국≫)과 공조하여 그 위협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처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부시는 2002년 2월 1일 백악관을 방문한 요르단 국왕을 만난 자리에서 북(조선)에 대해 ≪재래식 무기를 일부 철수시키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명백히 선언하고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동방 삼국 순방에 나선 2002년 2월 17일 중간기착지인 알래스카주 엘먼돌프 공군기지에서 연설하면서 조미 정치협상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 가운데 북(조선)의 재래식 무기를 뒤로 물리는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노리는 천만부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부당한 요구가 조미 정치협상에서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부시 행정부도 잘 알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7월 24일 러시아의 ≪이타르타스통신≫과의 서면대담에서 ≪더욱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조선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다 못해 이제는 우리의 상용무력의 위협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횡포한 도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그 협상에서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 뻔한 요구를 자꾸 내놓는 까닭은, 그 요구가 통하리라고 예상할 만큼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아니고 그 요구를 기어이 관철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러한 것도 아니다. 부시 행정부가 그런 따위의 부당한 요구조건을 자꾸 내놓고 있는 근본 의도는, 조미 정치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미리 내놓고 나중에 협상이 일정에 오르면 의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철회하는 척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양보를 얻어내려는 데 있다. 이를테면 자기들은 북(조선)의 재래식 무기를 뒤로 후퇴시키라는 요구를 포기할 테니 북(조선)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를 포기하라는 식이다.

앞으로 조미 정치협상이 재개되면 부시 행정부는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꺼내놓지 못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구를 꺼내놓는 순간 조미 정치협상은 깨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정작 조미 정치협상이 재개되면 부시 행정부가 북(조선)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꺼내놓지 못하고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미국의 언론에서 몇 차례 흘러나온 바 있다.

2002년 1월 28일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부시 행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북(조선)이 원하지 않는다면 재래식 무기를 의제로 하는 논의를 뒤로 미룰 수 있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2002년 2월 14일 ≪뉴욕타임스≫는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유연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고 했던 말을 보도하였다. 2002년 2월 21일 남(≪한국≫) 군부의 고위 당국자도 ≪재래식 무기를 현 단계에서 후방에 배치하라고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 한미 양국은 군사적 신뢰구축부터 먼저 추진키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내일 계속)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민≫ 2002년 4월호